



22nd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Le nozze di Figaro

10. 24 FRI. 19:30 – 25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22nd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Le nozze di Figaro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_글로벌 영아티스트 오페라

W. A. Mozart 피가로의 결혼



22nd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_글로벌 영아티스트 오페라

Le nozze di Figaro

W. A. Mozart 피가로의 결혼

10. 24 ^{FRI.} 19:30 – 25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_글로벌 영아티스트 오페라

Le nozze di Figaro

W. A. Mozart 피가로의 결혼

10. 24 (금) 19:30 – 10. 25 (토)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주최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주관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후원협력 대구헌지법인
대구신세계

 LOTTE
DEPARTMENT STORE

COFFEE MYUNGGA
SINCE 1990

 KORAIL
대구본부

 83 TOWER
DAEGU

Le nozze di Figaro

W. A. Mozart 피가로의 결혼

개요

작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756-1791
대본 로렌초 다 폰테
원작 피에르 드 보마르셰 피가로 3부작 중 2부
배경 17세기 스페인 세비아
초연 1786. 5. 1 빈 부르크 극장
형식 4막
언어 이탈리아어(국문/영문자막 제공)

주요 제작진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김광현
연출 엄숙정

출연진

백작 Bar.	10. 24.	미카일 모타이렌코
	10. 25.	루이스 칼베트 이 페이
백작부인 Sop.	10. 24.	알레시아 카마린
	10. 25.	아나스타시아 안트로포바
피가로 Bass	10. 24.	이기현
	Bass Bar.	10. 25.
수잔나 Sop.	10. 24.	실비아 스페솿
	10. 25.	박희경
케루비노 M. Sop.	10. 24.	김하은
	10. 25.	힐러리 앨리슨 터포드
바르톨로 Bass	10. 24.	나규보
	10. 25.	나규보
마르첼리나 M. Sop.	10. 24.	김현진
	10. 25.	도미니카 이사벨 마르코바
돈 쿠르시오/바질리오 Ten.	10. 24.	박성욱
	10. 25.	박성욱
안토니오 Bass	10. 24.	박준모
	10. 25.	박준모
바르바리나 Sop.	10. 24.	이예지
	10. 25.	김우린

디오오케스트라 / 대구오페라콰이어

INFORMATION

Composer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Librettist Lorenzo da Ponte
Form 4 acts
Language Italian(Korean/English subtitles)

CREATIVE TEAM

Artistic Director Chung Kabgun
Conductor Kim Kwanghyun
Director Eom Sookjeong

CAST

Count Almaviva Bar.	10. 24.	Mihail Motaylenko
	10. 25.	Lluís Calvet i Pey
Countess Almaviva Sop.	10. 24.	Alessia Camarin
	10. 25.	Anastasia Antropova
Figaro Bass	10. 24.	Lee Kihyun
	Bass Bar.	10. 25.
Susanna Sop.	10. 24.	Silvia Spessot
	10. 25.	Park Heekyung
Cherubino M. Sop.	10. 24.	Kim Haeun
	10. 25.	Hillary Alison Tufford
Bartolo Bass	10. 24.	Na Kyubo
	10. 25.	Na Kyubo
Marcellina M. Sop.	10. 24.	Kim Agnes Hyunjin
	10. 25.	Dominika Isabell Marková
Don Curzio/Basilio Ten.	10. 24.	Park Seunguk
	10. 25.	Park Seunguk
Antonio Bass	10. 24.	Park Junmo
	10. 25.	Park Junmo
Barbarina Sop.	10. 24.	Lee Yeji
	10. 25.	Kim Woorin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 Daegu Opera Choir

Contents

인사말	Greetings	05
작곡가 소개	Composer	06
작품 소개	Exposition of Le nozze di Figaro	08
연출의 글	Director's Note	12
줄거리	Synopsis	13
무대디자인	Scenic Design	14
주요제작진	Creative Team	16
출연진	Cast	18
출연단체	Cast	26
제작진	Staff	27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30

참여극장 및 협업기관 Partner Theater & Institution



지금 이 순간, 세상이 주목하는 젊은 목소리들! 글로벌 영아티스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맞이하며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 갑 균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

10월 25일은 세계 오페라의 날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여 모차르트의 대표작 〈피가로의 결혼〉을 글로벌 영아티스트들의 무대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시대의 억압과 부조리를 유머와 풍자로 풀어낸 위대한 명작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단순한 고전의 재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국, 미국, 캐나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페인 - 무려 전 세계 7개국에서 선발된 만 35세 이하 젊은 성악가들이 엄정한 오디션을 거쳐 대구에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들이, 모차르트의 언어로 하나 되어 무대 위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이번 공연을 통해 예술의 미래가 움트는 순간을 담고자 합니다.

그들은 오늘의 신예이지만, 내일의 무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음악을 관객 여러분 앞에 펼쳐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고전 〈피가로의 결혼〉이 그들의 떨림과 꿈, 그리고 젊음이라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담아 새롭게 피어나는 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예술의 진심을 믿고 극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글로벌 영아티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있는 신진 성악가들에게 글로벌 성악 인재의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756-1791

Wolfgang Amadeus Mozart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태생으로, 하이든, 베토벤과 함께 고전음악을 완성한 위대한 음악가. 머릿속에 떠오른 악상을 악보로 옮겨놓으며 단숨에 곡을 완성하는 뛰어난 작곡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오페라 약 27곡을 비롯해 교향곡, 협주곡, 독주곡, 교회용 성악곡, 칸타타, 미사곡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울러 무려 600여 곡을 작곡했다. 그의 음악은 감상하기에는 편안하지만 전체 악기의 완벽한 조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주자에게는 까다로운 편이며, 이런 조화는 그 스스로가 수많은 악기를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차르트는 또한 3세 때 건반악기를 다루기 시작해 5세 때 처음으로 피아노 연주곡을, 8세 때는 첫 교향곡을 작곡했고 단 한 번 들은 음악의 악보를 정확히 그려내는 등 어린 시절부터 두드러진 천재성을 보였다. 비록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다섯 명의 형제, 자매에 이어 누나인 마리아안나와 함께 살아남은 귀한 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일생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은 매우 지대했다. 궁정의 작곡가였던 아버지 레오폴트는 모차르트를 최고의 음악가로 키워내기 위한 연주여행을 계획했고, 연주여행은 모차르트가 6세 때 뮌헨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약 10여 년간 계속되었다. 영국에서 바흐, 빈에서 하이든, 파리에서 슈베르트 등 각지에서 음악적 체험과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교류는 그의 작품세계의 큰 맥이 되었다. 아들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의 영향으로 모차르트는 일찍부터 음악적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었으나,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음악 외에는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모차르트는 열일곱의 나이에 잘츠부르크 궁정 작곡가가 되었으나 새로 부임한 대주교는 그의 잦은 연주 여행과 자유로운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귀족의 후원을 받아야만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시대에 모차르트는 결국 잘츠부르크의 궁정을 떠나 빈에 정착(1781), 자유로운 창작 활동으로 그의 마지막 10년을 보내게 된다. <피가로의 결혼>은 천재 작곡가 로렌초 다 폰테와의 3부작 <코지 판 투테>, <돈 조반니>, <피가로의 결혼> 중 첫 작품이다. 보마르세의 희극은 상류 계층에 대한 조롱 때문에 빈에서 상연이 금지되었지만, 이를 보다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바꾼다. 폰테에 의해 간신히 상연 허가를 받게 된다. 1786년 5월 1일 빈에서 초연된 <피가로의 결혼>은 당시 국왕이 앙코르의 횡수를 제한하는 명령을 선포했을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모든 극장에서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 혼자만의 창조물이 아니다.

음악·무용 칼럼니스트 유 형 중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1756~1791)는 당대에 유행한 세 가지 타입의 오페라를 두루 작곡했다. 바로크 시대부터 계속된 이탈리아 오페라 세리아(‘진지한 오페라’라는 뜻. 실제로는 대부분 해피엔딩), 18세기 중반부터 전성기를 맞이한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희극적 오페라’라는 뜻), 그리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민속적 분위기의 징슈필(‘노래 연극’이란 뜻)이 그것이다. 이중 작품 수준이 가장 높고 인기도 높은 모차르트 오페라는 단연코 오페라 부파요, 그 3대 걸작이 <피가로의 결혼>, <돈 죠반니>, <코지 판 투테>다. 그중에서도 <피가로의 결혼>이 가장 유명하고 자주 공연된다. 모차르트가 어마어마한 천재였기에 <피가로의 결혼>이 불멸의 명작이 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다 이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밤하늘을 달빛 하나만으로 온전히 밝힐 수 없듯이 수많은 별에 해당하는 여러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우선 역시 천재적 인물이었던 로렌초 다 폰테의 대본이 뛰어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다 폰테의 대본은 그 원작인 피에르 보마르셰의 희곡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가로의 결혼>에 담긴 프랑스 대혁명 전야의 유럽 사회상에 대한 풍자는 보마르셰의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다. 음악적으로는 모차르트와 동시대, 혹은 그보다 앞선 나폴리 악파의 여러 오페라 작곡가들이 깔아놓은 명석 위에 모차르트가 올라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아라비아 양탄자처럼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모차르트의 재능에 힘입은 바이지만 동료들이 직조한 명석의 품질 또한 워낙 훌륭했던 덕분 아닐까?

이탈리아 희가극, 오페라 부파

1786년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된 <피가로의 결혼>은 18세기의 산물인 ‘오페라 부파’의 대표작이다. 오페라 부파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본질적으로 희극이란 점이다. 대개는 두 청춘 남녀 간의 사랑, 이들의 결혼을 방해하는 부친이나 후견인, 또는 굴러온 돌에 해당하는 구혼자 사이의 갈등, 피날레에서의 유쾌한 해소가 주된 내용이다. 둘째는 희가극 중에서도 이탈리아 오페라에 통용되는 양식이란 점이다. 오페라 부파는 나폴리에서 비롯되어 거의 온 유럽에 퍼져나갔으니 명백한 이탈리아 고유의 양식이다. 따라서 프랑스나 독일 희가극은 오페라 부파가 아니며, 자국의 민속풍 분위기를 담아 오페라 코미크와 징슈필로 조금씩 다르게 발전하게 된다. 물론 분류 기준은 작곡가의 국적이나 공연장소가 아니라 대본에 사용된 언어다.

다양한 유형으로 약 25편이 남아있는 모차르트 오페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야는 오페라 부파다. 왜 그럴까?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 유럽 여러 지역에 연주 여행을 다녔는데, 특히 이탈리아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작곡 공부에 몰입했을 당시에 유럽 음악을 선도하던 그곳 분위기를 받아들였다. 오페라 장르에서 이탈리아 정통 양식이 세리야요,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부파였다. 게다가 1781년 이후 모차르트가 거주한 오스트리아의 빈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야말로 귀족과 부자를 위한 고급 공연물이고, 독일어로 노래하는 징슈필은 서민을 위한 대중적 장르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모차르트로서는 이탈리아 오페라에 더욱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대본작가 로렌초 다 폰테

모차르트 입장에서는 대본 작가 로렌초 다 폰테(1749~1838)와의 만남이야말로 큰 행운이었을 것이다. 베네치아 출신의 다 폰테는 천재적 문재(文才)를 지녔지만 부친이 새파랗게 어린 여자와 재혼하자 이에 반발해 교회 활동에

전념하다 24세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러나 그토록 증오했던 부친의 바람기 유전자를 물려받은 탓인지 사제 신분임에도 유부녀와 눈이 맞아 사생아까지 얻었다. 이는 베네치아에서 큰 스캔들이 되었으며 30세의 한창 나이에 추방령을 받게 된다. 그러다가 오스트리아 황실의 궁정 음악가로 일하고 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를 소개받아 빈으로 향하게 된다. 마침 뛰어난 대본작가를 갈구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는 창작 경험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다 폰테의 재능만 보고 “좋아. 그렇다면 우리는 처녀 뮤즈를 손에 넣은 셈이군.”이라며 그를 중용하기로 한다. 이때부터 다 폰테는 살리에리와 모차르트, 그들의 라이벌이었던 스페인 출신의 마르틴 이 솔레르 등을 위해 대본을 썼다. 덕분에 빈은 본고장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베네치아보다도 더 활발한 오페라의 중심지로 올라섰다.

모차르트와 다 폰테가 협력한 세 편의 오페라 부파는 모두 당대의 성 풍속, 나아가 인간 내면의 본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다. 다 폰테의 대본은 당대의 다른 작가들보다 수준이 한 차원 높은 것이어서, 이탈리아 전통극인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오페라 부파의 교과서적인 틀을 이미 탈피하고 있었고, 희극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 <피가로의 결혼>은 귀족의 행태를 비아냥거리면서도 백작부인 로지나를 통해 쇠락해 가는 귀족사회에 은은한 빛을 비추는데, 그런 가운데 어린 미소년에게 살짝 끌리는 로지나의 모습까지 남긴 것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다 폰테의 천재성의 소산이다.

보마르셰가 창조한 피가로, 너는 누구냐?

하지만 <피가로의 결혼>의 이야기 자체는 다 폰테의 창작이 아니라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극작가 피에르 드 보마르셰(1732~1799)의 ‘피가로 3부작’ 중 2부를 다룬 것이다.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본명이 피에르-오귀스탱 카롱이었던 그는 토피니바퀴의 회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를 고안한 재주꾼이었다. 그런데 특허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자 스스로 변론하기 위해 쓴 글이 주목을 받으면서 희곡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카롱은 처세술에도 능했다. 단순한 시계장인 신분으로는 상류 사회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자신보다 한참 연상인 부잣집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녀 가문에서 소유한 영지 이름이 보마르셰였다.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 바람에 보마르셰는 부자가 되었고, 영지 이름을 새로운 성으로 붙인 덕분에 마치 귀족처럼 여겨지게 된다.

‘피가로 3부작’의 1부는 <세비야의 이발사>로 1775년 출판되었다. 2부가 3년 후 1778년에 나온 <피가로의 결혼>이다. <피가로의 결혼>은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그토록 요란스러운 사랑으로 맺어졌던 알마비바 백작과 로지나가 결혼하고 몇 년이 흐른 후의 이야기다. 지금은 백작의 시종으로 일하고 있는 피가로는 백작부인이 된 로지나의 하녀 수잔나와 결혼이 임박했다. 그러나 워낙 여자를 좋아하고 권태기를 겪는 중인 백작은 수잔나에게 탐욕을 품는다. 초야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사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초야권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영주가 사용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를 행사할 경우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 듯 반발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피가로는 주인인 백작이 연적인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이 완결된다. 이 극에서 보마르셰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백작이 속한 귀족 계급과 그들의 행태에 대한 야유였다고 한다. 원작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피가로의 독백이 있다.

“백작 나리, 당신은 절대로 수잔나를 차지할 수 없어! 대단한 귀족이시고 재능도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작위와 재산, 수많은 직분, 이것저것 모두 꿈아보면 컷대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만한혜택을 받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노력하신 것이라곤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태어난 수고, 오로지 그거 하나 아닙니까?”

이 대사는 오페라 공연에 문제가 없도록 다 폰테가 생각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희극적 사랑 놀음뿐 아니라 높은 분들에 대한 풍자가 숨어있음은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모차르트의 업적

아무리 보마르세 원작의 풍자가 뛰어나고, 다 폰테의 대본이 오페라로 만들기엔 좋았다고 치더라도 모차르트는 어쩌면 그렇게 풍성한 멜로디와 음악적인 완결성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까? 그냥 타고난 천재라서 쉽게 저절로?

1770년 14세의 모차르트는 이탈리아여행 중 밀라노의 극장으로부터 오페라 세리아 작곡을 의뢰받는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폰토의 왕 미트리다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오페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있다. 요제프 미슬리베체크의 <라 니테티>다. 1737년 보헤미아의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난 미슬리베체크는 1763년 작곡가의 꿈을 품고 이탈리아로 건너와 수많은 오페라를 썼는데, 그 모델이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 니콜로 포르포라, 요한 아돌프 하세, 니콜로 피치니 등의 나폴리 악파 오페라였다. 그는 1770년 여름 볼로냐에서 <미트리다테>를 작곡 중이던 모차르트를 처음 만나 수년에 걸친 친분을 쌓게 되는데, 그보다 수개월 전에 <라 니테티>를 이곳에서 공연한 터였다. 그 악보를 모차르트가 입수해 나폴리 오페라의 풍성한 기법을 단기간에 습득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따라서 <라 니테티>는 오페라 세리아였지만 모차르트 모든 오페라의 원형일 수도 있다. 십수 년이 흘러 빈에 정착한 모차르트가 다 폰테와 협력을 시작했을 때는 2세대 나폴리 악파인 조반니 파이지엘로, 도메니코 치마로사, 그리고 나폴리 악파는 아니지만 그 음악적 세례를 받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오페라 부파를 충분히 접할 수 있었다. 심지어 파이지엘로는 '피가로 3부작'의 1부인 <세비야의 이발사>를 1782년에 이미 작곡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모차르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을 거의 비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피가로의 결혼>을 위시한 모차르트의 걸작은 나폴리 악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이 학계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다만 모차르트가 비록 나폴리 악파의 산물인 성악적 기교와 형식을 이어받았지만, 여기에 교향악적 짜임새, 드라마의 일관성, 인간적 심리 묘사를 더해 새로운 차원을 개척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나폴리 양식이 틀을 제공했다면, 모차르트는 그 틀을 극적, 심리적 깊이로 채운 것이다. 따라서 나폴리 악파의 영향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는 <피가로의 결혼>에 구현된 모차르트의 숨씨를 인정할 차례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뛰어난 점은 무엇보다도 전형적인 부파의 틀을 뛰어넘은 파격에 있다. 우선 일방적 소극(笑劇)이 아니라 통상의 희극 캐릭터가 아닌 백작과 백작부인이 피가로와 수잔나 커플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오페라 부파에서는 나쁜 꾀를 부리다가 망신을 당하는 베이스가 바소 부포(basso buffo)라는 용어로 희극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런데 알마비바 백작의 경우 역할은 바소 부포인데 노래에는 대귀족다운 품위가 묻어 나온다. 성부도 전형적인 베이스가 아니라 대체로 바리톤이 부른다. 게다가 아무 생각 없는 바람둥이는 아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고 질투하는 남편의 모습이 남아있다. 백작부인 로지나의 경우는 희극적인 면모가 더더욱 없다. 남편의 사랑이 식어서 상심해있는 역이요, 그녀가 부르는 2막과 3막의 두 아리아는 오페라 세리아에서도 만나기 힘든 깊은 감동을 안겨준다.

대부분 정형화된 인물을 풍자하는 오페라 부파의 일반적 규칙과 달리 주요 캐릭터가 모두 살아 숨 쉬는 점도 매력적이다. 피가로를 보자.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그토록 순발력 넘치는 꾀돌이였건만 막상 자신의 결혼에 장애가 생기자 허둥거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오히려 그의 연인 수잔나가 더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간다. 그러다 보니 제목은 <피가로의 결혼>인데 타이틀 롤인 피가로는 백작부인과 수잔나가 힘을 합쳐 백작의 잔꾀를 쳐부수는 역할을 한다. 어쩌면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근대적 여성상을 그렸다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할 것 같다. 케루비노라는 10대 중반의 미소년도 나오는데, 메조소프라노가 부르는 '바지 역'이다. 몰락한 귀족의 자제로, 치마 두른 여자만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춘기 소년이며, 그 행태가 마치 '작은 알마비바 백작'을 닮았다. 그래도 매혹적인 캐릭터다. 오죽하면 백작부인 로지나가 그 뽕송뽕송 풋풋한 모습에 마음이 떨리기도 할까? 한편 피가로는 여전히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로시나의 옛 후견인 바르톨로와 젊은 피가로에게 매혹된 나이 든 여인 마르첼리나 사이에 혼외(婚外)로 태어난 자식 임이 밝혀지는 부분은 좀 유치하지만, 모차르트는 그런 장면조차도 미소를 머금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보면 각 세대별로 커플이 구성된다. 늙은 바르톨로와 마르첼리나, 원숙한 백작과 백작부인, 결혼 적령기의 피가로와 수잔나, 아직 어린 케루비노와 정원사의 딸 바르바리나... 이런 다양한 연령과 신분의 남녀가 어울리고 대립하는 다양한 중창과 화음이 이 오페라의 음악적 매력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오페라 부파의 전형인 2막이 아닌 4막 구조의 대작이란 점, 피날레가 야외에서 펼쳐진다는 점도 대체로 실내극인 오페라 부파의 공식과는 다르다. 과연 여러 면에서 오페라 부파의 닫힌 구조를 깨뜨려버린 선구적 걸작이 아닐 수 없다.

보마르세와 다 폰테 등의 후일담

1790년 요제프 2세가 죽자 다 폰테는 빈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유럽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겨우 오페라 제작자로 입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다시 일을 크게 벌이려다 파산하고 말았다. 도피하듯 신대륙으로 떠난 그는 식료품점, 이탈리아어 강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번 돈으로 70세가 되어서야 이탈리아 서적을 취급하는 책방을 뉴욕에 열어 안정을 찾는다. 컬럼비아 대학의 이탈리아 문학담당 교수로 임용된 것은 무려 76세 때였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13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늘그막에 평온해지자 다시 오페라에 대한 열정이 솟아올라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치마로사, 모차르트, 로시나의 오페라를 미국에 소개하는 일에 매달렸다가 완전한 빈털터리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도 성 패트릭 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수많은 인파가 운집했다니 풍운아다운 삶에 보람은 있었으리라. 아쉬운 점은 다 폰테 대본에 구현된 잘 짜인 구성과 맛깔스러운 대사조차 모차르트의 공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어 다 폰테의 업적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고에게만 열광하는 것이 대중의 속성이다 보니 다 폰테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보다 더 뛰어났던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 폰테는 그냥 묻히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한편 보마르세는 프랑스 정부의 외교적 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가장 유명한 업적은 미국 독립전쟁 지원으로, 루이 16세의 지시를 받아 위장회사를 운영하며 군수품과 자금을 식민지 반군에 공급했다. <피가로의 결혼>에 묘사되었듯이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귀족 특권을 비판했던 보마르세는 막상 혁명 이후에는 왕정을 무너뜨리려는 급진적인 흐름에 충분히 동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혁명 정부에 투옥되기도 했으나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다. 바로 이 시기인 1792년에 피가로 3부작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죄 많은 어머니>를 썼다. 이 작품은 시간이 흘러 알마비바 백작과 백작부인이 결국은 외도를 저질러 각자의 자식을 낳고,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이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막장 드라마로, 거의 희극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프랑스 대혁명의 분위기를 담아 묘사한다. 한편 보마르세는 1780년대 이후 미국 독립전쟁과 관련된 채권과 보상 문제로 재정 분쟁에 줄곧 시달렸다. 그러다가 1799년 별로 행복하지 못한 분위기 속에 세상을 떠났다.

<피가로의 결혼>의 전편인 <세비야의 이발사>는 1816년 24세의 조아키노 로시니가 오페라로 만들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초연 당시에는 아직 생존해있던 파이지엘로가 한 세대 전에 작곡한 <세비야의 이발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덕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죄 많은 어머니>도 몇 차례 오페라로 만들어졌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1991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100주년 기념작인 존 코릴리아노의 <베르사유의 유령>으로 부분적 이나마 살아났다.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는 새롭게 만들었으나 <죄 많은 어머니>를 중요하게 이용한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유령의 세상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공연'이라는 극중극 방식이며, 보마르세의 입장과 비슷하게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강경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보마르세, 피가로와 수잔나, 알마비바 백작과 로지나 등도 등장해 이야기를 풍성하게 꾸민다. 전체적으로는 현대음악이지만 모차르트와 로시니 스타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터키 대사의 연회 장면에서는 아라비아 풍의 음악도 삽입한다.

때론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은 문학과 예술의 힘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잠시나마 정화되는 시간을 누릴 수 있길 막을 올리며 소망해 본다.

연출 엄 속 정

프랑스의 극작가 피에르 드 보마르세(Pierre-Augustin Caron de Beaumarchais)의 3부작 중 '미친 날(La folle journée)' 또는 '피가로의 결혼(Le mariage de Figaro)'을 바탕으로 쓰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은 모차르트와 환상의 케미를 보이며 작업한 시인 다 폰테(Lorenzo Da Ponte)와의 첫 번째 작품이다. 그들은 <피가로의 결혼>(1786), <돈 조반니>(1789), <코지 판 투테>(1790) 등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걸작으로 평가받는 세 편의 역작을 세상에 탄생시킨 명콤비 조합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귀족 계급의 세태와 편협한 봉건주의 사회에서 대두되는 불합리적인 풍습과 무질서 그리고 부도덕함을 깊이 반영한 악명 높은 보마르세의 풍자극을 오페라로 만들기 위해 작정한 모차르트는 봉건시대의 악습인 '초야권(영주가 신부의 첫날밤을 차지하는 권리)'을 소재로 구시대에 맞선 새로운 세대 즉 시민계급이 저항해 나가는 당시의 시대상을 작품에 담으려고 하였다. '그 잘난 지위를 누리기 위해 대체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말고는 없지 않은가' 이미 보마르세의 연극으로부터 프랑스 혁명은 시작되었다고 말한 나폴레옹의 낱선 발언은 작품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루이 16세를 비롯해 귀족의 무능함을 지속적으로 비웃고 있는 점, 주요 인물인 백작이 이미 법적으로 금지된 '초야권'을 주장하는 음흉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 등을 증거로 보마르세 공연 당시 작품은 상연을 금지당했고, 역시 신랄하고 수위 높은 원작의 특성상 검열을 피할 수 없었던 모차르트의 오페라에서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노골적인 대사들은 삭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거운 소재와 시대상의 이야기를 희극적인 전환과 코미디적인 처리 즉 오페라 부파의 형식으로 완성 시키며 모차르트는 분위기나 톤을 바꾸어 심각한 어떤 것들을 일상적이고 받아들이 법한 것들로 납득시키는 놀라운 감각을 발휘했다.

실제 희극의 효과로 관객은 감정의 안정을 느끼며 무거웠던 주제나 메시지를 보다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고 주어진 상황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는 것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더군다나 세련되고 섬세하게 승화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심각한 것은 가벼워지고 인물들에 쉽게 몰입하여 수많은 분노들이 용서되며 화합하게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행복한 결혼식 아침 던져진 하나의 조각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점차 다양한 인물들과 복잡하게 얽힌 갈등, 속고 속임의 연속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로 작품의 공간은 협소한 것에서 시작되어 점점 확장된 공간, 전막의 곳곳에 노출된 사선이 주는 긴장감, 4막 구조물의 지그재그 조합 등으로 보이는 혼란과 카오스로 뒤섞이게 되지만 모든 것이 용서되고 자유할 수 있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려는 의지가 담긴 열린 무대로 마무리된다. 여전히 우리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은 타락했고 불안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잘못 분배된 힘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때론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은 문학과 예술의 힘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잠시나마 정화되는 시간을 누릴 수 있길 막을 올리며 소망해 본다.

1막 피가로와 수잔나의 신혼 방

백작의 하인인 피가로와 수잔나가 결혼을 앞두고 기쁨에 들떠있다. 피가로는 바람둥이 백작이 하녀에 대한 초야권을 내세워 수잔나를 손에 넣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백작을 골탕 먹이기로 결심한다. 한편 피가로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바르톨로와 피가로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미끼로 그와 결혼하고자 하는 가정부 마르첼리나는 둘의 결혼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이들이 퇴장한 후 젊은 시동 케루비노가 수잔나를 찾아와 여자들에게 설레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다. 이때 백작이 수잔나를 유혹하기 위해 등장하고, 다급해진 케루비노는 의자 뒤쪽으로 숨는다. 이어 이 상황을 모르는 바질리오가 들어오자 백작도 숨어든다. 그러나 백작부인과 케루비노 사이를 의심하는 바질리오의 말에 백작은 참다못해 뛰어나오고, 케루비노 또한 곧 발각되고 만다. 이에 백작은 케루비노에게 당장 군에 입대할 것을 명령한다.

2막 백작부인의 방

백작부인은 백작의 바람기 때문에 홀로 방에서 슬퍼하고 있다. 이때 피가로와 수잔나가 찾아와 백작부인이 남자와 밀회를 즐긴다는 익명의 가짜 편지를 백작에게 보내고, 그 현장에 케루비노를 변장시켜 내보내 백작으로 하여금 봉변을 당하게 하자는 계락을 제안한다. 한창 케루비노를 변장시키던 중 사냥을 나갔던 백작이 갑자기 나타나고, 케루비노는 옷장에 숨어든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백작이 문을 열기 위한 도구를 가지러 간 사이 수잔나는 케루비노를 창문 밖으로 도망치게 하고, 대신 자신이 옷장에 들어간다. 백작은 강제로 옷장 문을 열지만, 그곳에는 수잔나가 있을 뿐이다. 당황한 백작은 부인을 의심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지만 내심 반신반의한다. 한편 바르톨로와 마르첼리나가 나타나 백작에게 재판을 부탁한다.

3막 성내의 큰 홀

백작은 피가로가 마르첼리나와 결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가로가 예전에 강도에게 유괴당했던 바르톨로와 마르첼리나의 아들임이 밝혀진다. 한편 수잔나는 백작부인과 함께 백작에게 전달할 거짓 편지를 쓴다. 두 사람은 편을 이용해 편지를 봉하고, 편을 돌려달라고 쓴 뒤 품속에 감춘다.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되고, 수잔나는 백작에게 편지를 건네준다. 편지를 열어보던 백작은 핀에 손가락을 찔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가로는 백작을 보고 비웃는다.

4막 백작 저택의 정원

피가로는 핀의 주인과 백작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수잔나라는 사실을 알고는 질투에 휩싸인다. 수잔나와 백작부인은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각각 피가로와 백작에게 다가간다. 백작은 백작부인을 수잔나로 착각해 유혹하기 시작한 반면 피가로는 백작부인으로 변장한 수잔나를 목소리로 알아챈다. 이윽고 백작부인이 정체를 드러내자 백작은 부인에게 용서를 빈다. 무대 위의 모든 사람들은 일이 무사히 수습된 것을 기뻐하고 결혼식 피로연장으로 향하며 막이 내린다.



피가로와 수잔나의 신혼방 A room of Figaro and Susanna



백작부인의 방 A room of Countess



성내의 큰 홀 A large hall in the Castle



정원 A garden

예술감독 정 갑 군**Artistic Director** Chung Kabgun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 연극학교 연출과 졸업,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연출 수업
- 최초 국악오페라 <직지>, 독일 칼스루에극장 <나비부인> 연출 및 터키 아스펜도스 오페라 & 발레페스티벌 <라 트라비아타>,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에서 동양인 연출가 최초로 2년 연속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 오페라 <라 보엠>, <오텔로>, <운명의 힘>,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마탄의 사수>, <투란도트>,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리골레토> 등 145편 연출
-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역임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지휘 김 광 현****Conductor** Kim Kwanghyun

- 서울대학교 음대 작곡과 지휘전공,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 졸업
-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역임
-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국립심포니, 경기필, 부천필, 수원시향, 인천시향 등 국내 대부분의 국공립 교향악단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 로이틀링겐 필, 남서독일 콘스탄츠 필, 체코 칼로비바리 심포니,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일본 규슈 심포니 등 해외 다수 교향악단 지휘
- <가면무도회>, <마술피리>, <라보엠>,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운명의 힘>, <카르멘>, <파우스트>, <피가로의 결혼>, <토스카>, <투란도트> 등 20여편 이상의 오페라 지휘
- ‘돈키호테’, ‘로미오와 줄리엣’, ‘지젤’, ‘호두까기 인형’ 등 10여편 이상의 발레 지휘
- 현) 부산콘서트홀 상주 클래식부산 시즌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연출 엄 숙 정****Director** Eom Sookjeong

- 이탈리아 아퀼라 국립음악원 피아노과, 프로시노네 리치니오 레피체 국립음악원 오페라 연출과 수석 졸업
- 이탈리아 발무치아 시립극장, 에스토니아 사아레마 오페라축제,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예술의전당, 성남문화재단, 아트센터인천, 대구오페라하우스, 부산문화회관, 부산콘서트홀 등 국내외에서 연출
- 오페라 <사랑의 묘약>,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라보엠>, <토스카>, <잔니스키키>,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피델리오>, <파우스트> 등 다수 연출
- 현) 이화여대, 경희대,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에 출강하며 전문 연출가로 활동 중



알마비바 백작 Bar. 미카일 모타이렌코**Count Almaviva** Bar. Mihail Motaylenko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글린카 음악학교 피아노 전공 졸업
- 2023년 국제 발칸 로망스 콩쿠르 그랑프리 대상
- 2024년 국제 러시아 로망스 콩쿠르 결선 2위
- 2024년 이탈리아 국제 산마리노 로망스 콩쿠르 1위
- 2024년 불가리아 플레브넨 카차 포포바 국제 음악 페스티벌 참가
- 불가리아 소피아 오페라 극장 <라 보엠> 쇼나르, <카르멘> 모랄레스 출연
- 소피아 국립문화궁전, 모스크바 국립 크렘린 궁전 등 불가리아 및 러시아 주요 무대에서 활동
- 현) 불가리아 소피아의 판초 블라디게로프 국립음악원 성악과 4학년

**알마비바 백작** Bar. 루이스 칼벳 이 페이**Count Almaviva** Bar. Lluís Calvet i Pey

- 리세우 국립음악원 MA 오페라 과정 수료, 영국 왕립 웨일즈 음악·연극대학교(RWCMD) 학부 및 MA Advanced Opera 과정 수료
- 2024 테너 비냐스 콩쿠르 다수 수상 (플라시도 도밍고 상, 자르주엘라 상, 관객상)
- 2023 벨베데레 국제 성악 콩쿠르 파이널리스트
- 바르셀로나 레스코르츠 성악 콩쿠르 2위
- 하노버 슈타츠오퍼 오페라 스튜디오 수료 및 앙상블 활동
- 오페라 <팔리아치>, <라 보엠>, <사티아그라하>, <세비야의 이발사>, <닉슨 인 차이나> 등 주·조역 출연
- 오페라 라라 및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 론디네> 프로니에 역 녹음

**백작부인** Sop. 알레시아 카마린**Countess Almaviva** Sop. Alessia Camarin

- 베네치아 베네데토 마르첼로 음악원 최우수 졸업 및 '토티 달 몬테' 장학금 수상
- 2025년 제76회 AsLiCo 국제 오페라 콩쿠르 1위
- 2025년 오페라 도마니(OperaDomani)와 함께 베르디 <팔스타프> 아실리코 코모극장, 브레시아 그란데 극장, 파르마 레지오 극장 등 이탈리아 주요 극장 투어
- 제7회 보체 디 엔젤로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및 주세페 마세티 특별상
- 2024년 'Omaggio a Puccini' 심포닉 오페라 갈라 콘서트 솔리스트
- 2024년 리보르노 골도니 극장 바흐 <커피 칸타타> (BWV 211) 리센 역
- 2023년 베네치아 말리브란 극장서 <Bach Haus> 주역

**백작부인** Sop. 아나스타시아 안트로포바**Countess Almaviva** Sop. Anastasia Antropova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림스키-코르사코프 국립음악원 피아노 석사
- 미국 시카고 퍼포밍 아츠 칼리지 성악·피아노 석사
- <라 보엠> 미미, <아이다> 아이다, <피가로의 결혼> 백작부인, <예브게니 오네긴> 타티아나 등 다수 오페라 주조역 출연
- 2022 시카고 심포니 센터 말러 교향곡 3번 솔리스트
- 미국 시카고 썸머 오페라, 멕시코 모렐리아 오페라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페라 페스티벌, 콜롬비아 메델린 프로리리카 재단 오페라 출연
- 멕시코 자포판 오케스트라, 스페인 라 만차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 2025 미국 볼더 심포니와 협연, 파르마 레코딩스서 콘서트 녹음



피가로 Bass 이 기 현**Figaro** Bass Lee Kihyun

- 계명대학교 성악과 졸업, 런던왕립음악대학 석사(PGCert) 수료
- JTBC 팬텀싱어4, 불후의 명곡 출연
- 제 7회 파파로티 전국 성악콩쿠르 1위, 제 26회 성정음악콩쿠르 성악부문 금상, 제 35회 대구성악콩쿠르 장려상, 제 10회 마그다 올리베로 국제성악콩쿠르 특별상, 2015년 진주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 성악부문 최우수상, Opera Awards Foundation, Josephine Baker Trust, 성정&황진 장학생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살로메>, <라 보엠>, <잔니스키키>, <심청>, <달 빛>, <안드레아 셰니에>, <장미의 기사> 등 주·조역 출연
- 2019 영국 옥스퍼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토벤 9번 교향곡 베이스 솔리스트
- 수성아트피아·독일 카를스루에 국립극장 진출 오디션 최종 선발 및 극장 데뷔
- 독일 할레극장 오페라 <라 보엠> 데뷔 예정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펜스튜디오 수료, 비원뮤직홀 입주 음악가

**피가로 Bass Bar. 유제니오 마리아 데지아코미****Figaro** Bass Bar. Eugenio Maria Degiacomi

- 파르마 국립음악원(A. Boito) 졸업 (110점 만점 졸업, 2018)
- 모데나 파바로티-프레니 아카데미(2020-2021), 로돌포 첼레티 벨칸토 아카데미(2023) 수료
- 2020 카프리 오페라 페스티벌 3위, 2023 마리오 오를란도니 국제 콩쿠르 2위, 2024 툴리오 세라핀 콩쿠르 중 돈 마그니피코 역할 우승
- 오페라 <리골레토>, <코지 판 투테>, <라 트라비아타>, <돈 조반니>, <세비야의 이발사>, <사랑의 묘약>, <토스카>, <카르멘> 등 주·조역 출연
- 이탈리아 베르디 페스티벌,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 디 페아트라 페스티벌 등 유럽 다수 페스티벌 출연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세르비아 등지에서 Il Re, Pinocchio, Hasan, die Vater 등 현대 오페라 초연 참여
- 2025년 <라 보엠>, <안드레아 셰니에>, <세비야의 이발사>, <마농 레스코> 등 공연 예정

**수잔나 Sop. 실비아 스페숏****Susanna** Sop. Silvia Spessot

- 피렌체 루이지 케루비니 음악원 성악 학사·석사 졸업(최우수 성적)
- 볼로냐 테아트로 코무날레 오페라 스쿨 전문연수 과정 및 로시니 레퍼토리 전문연수 과정 수료
- 제9회 파우스토 리치 성악 콩쿠르 결선, 제15회 산 프란체스코 디 파올라 국제 콩쿠르 준결승, 제2회 트레비스 청소년 음악가 콩쿠르 1위
- 파나마 국립극장, 볼로냐 시립극장, 볼로냐 만조니 극장, 브레시아 그란데 극장, 피렌체 마지오 음악극장 유럽 유수 극장에서 활동
- 오페라 <코지 판 투테>, <가면 무도회>, <베르테르>, <돈 파스칼레>,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라 보엠>, <파우스트> 등 다수 주·조역 출연
- 베토벤 <코랄 판타지> 솔리스트, 루도비크 테지에·다니엘 오렌 갈라 콘서트, G20 정상회의 공연 등 콘서트·갈라 다수 출연
- 루치아나 딘티노, 바르바라 프리톨리, 소니아 가나시 등 세계적 성악가 마스터클래스 이수

**수잔나 Sop. 박 희 경****Susanna** Sop. Park Heekyung

- 목원대학교 성악뮤지컬학과 학사 졸업 (4년 장학생)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악대학교 오페라과 석사 졸업
- 제2회 KAMA 한미국제콩쿨, 제 21회 에듀클래식 콩쿨 1위, 제4회 아울러서 국제콩쿨 공동 3위 수상
- 포르투갈 '마르바옹 국제 음악 페스티벌' 초청 및 모차르트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의 '블론데'역 유럽 데뷔
- 오페레타 <박쥐>, <지옥의 오르페>, 오페라 <포페아의 대관식>, <알버트 헤링>, <코지 판 투테>, <세비야의 이발사>, <헨젤과 그레텔> 외 다수 주·조역 출연
- 스테이지원 '성악예찬' 프로젝트 영 아티스트 선발 및 고양 아람누리 갈라 콘서트 연주, 대전 예술의전당 스프링 페스티벌 바흐아벤트 신진예술가 선정 및 리사이틀 연주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펜스튜디오



케루비노 M. Sop. 김 하 은**Cherubino M. Sop. Kim Haeun**

- 서울대학교 성악과 학사 졸업, 석사 수료
- 2016년 음악교육 신문사 콩쿠르 대학부 1등, 2019년 대한민국 통일 문화제 종합대상 통일부 장관상, 2019년 채동선 음악 콩쿠르 일반부 2등 및 특별상, 2023년 한국 성악 이대웅 콩쿠르 입상
- 2015년 서울대 합창단 정기공연 A. Bruckner 'Te Deum' Alto 솔리스트
-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연
- 2021년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나비부인> 스즈키, <일 트리티코> 내 라 프린치페사 역으로 출연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케루비노 M. Sop. 힐러리 앨리슨 터포드****Cherubino M. Sop. Hillary Alison Tuff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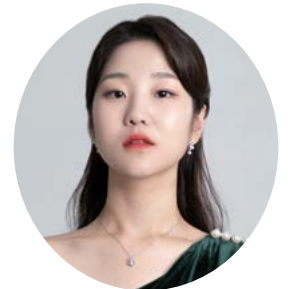
- 캐나다 웨스턴대학교 성악과 학사 및 석사(MMUs) 졸업 (최고성적 졸업)
- 밴쿠버 오페라하우스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인 Yulanda M. Faris 오픈스튜디오 수료
- 2022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퐁 콩쿠르 지역 우승, 2017년 도라상(Dora Award) 최우수 앙상블 부문 노미네이트, 헤이즐 크라이더맨-위스 장학금 수혜
- 밴쿠버 오페라, 토론토 시립 오페라, 사운드스트림스, 하이랜드 오페라 등 캐나다 주요 오페라 무대서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한 여름밤의 꿈> 등 활약
- 토론토 멘델스존 합창단, 키치너-워털루 심포니, 스카버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바르톨로 Bass 나 규 보****Bartolo Bass Na Kyubo**

- 이탈리아 밀라노 G.Verdi 국립음악원 졸업
- 이탈리아 모데나 파바로티 프레니 극장 아카데미 및 이탈리아 도니젠티 아카데미 수료
- 이탈리아 소렌토 국제콩쿨 1위, 이탈리아 토스카 국제콩쿨 1위 및 특별상등 다수 콩쿨 수상
- 에스토니아 탈린 윈터 페스티벌 초청 독창회, 노르웨이 라르비크, 이탈리아 안도라등 해외 다수 초청연주
-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 묘약>, <라보엠>, <돈 조반니>, <리골레토> 등 다수 오페라 주역
- 이탈리아 매거진 'Opera Life' 이 달의 아티스트 선정
- 스위스 라디오 RSI RETE DUE 이 달의 연주자 출연
- 현) 롯데재단 아티스트,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마르첼리나 M. Sop. 김 현 진****Marcellina M. Sop. Kim Agnes Hyunjin**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악대학교 오페라과 석사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고점 졸업
- 오스트리아 바트할 시립극장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20회 국립오페라단 성악 콩쿠르 파이널리스트, 제39회 대구 국제 성악콩쿠르 파이널리스트, 제27회 수리 음악콩쿠르 3위 입상
- World EXPO 2025 콘체르탄테 <돈 조반니>, 프랑스 마르세유 ARCO 국제 현대음악 리사이틀,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초청 콘서트 및 비엔나 호프부르크카펠레 초청 콘서트 등 공연
- 오페라 <돈 조반니> 돈나 엘비라, <카폴레티와 몬테키> 로메오, <피가로의 결혼> 케루비노, <카르멘> 메르세데스, <팔스타프> 퀴클리, <세비야의 이발사> 베르타, <마술피리>, <헨젤과 그레텔> 등 다수 주조역
- 메조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 카운터테너 앤드류 와츠, 소프라노 클래리 바르타 등 세계적인 성악가 마스터클래스 수료
- 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악대학교 최고 연주자 과정 재학 중

**마르첼리나 M. Sop. 도미니카 이사벨 마르코바****Marcellina M. Sop. Dominika Isabell Marková**

-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공연예술대학교 학사 및 석사 졸업
-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디플로마, 헝가리 프란츠 리스트 음악원 오페라 스튜디오 수료
- 스위스 오페라 스튜디오, 스위스 베른 국립예술대학교 전문과정 이수
- 제1회 빈치 국제음악콩쿠르 1위, 제26회 미클라슈 슈나이더트르나브스키 국제콩쿠르 파이널리스트(2025), Let's Sing 콩쿠르(체코), 에바 마르톤 국제콩쿠르(헝가리), 포르토피노 국제콩쿠르(이탈리아) 등 본선 진출
- 모데나 벨칸토 페스티벌, 페루자 음악 페스티벌, 리브헨스베르크 여름 페스티벌, 슬로바키아 스프링 페스티벌 등 초청
- 카르멘, 코지 판 투테, 일 마트리모니오 세그레토, 프로젝트 버터플라이, 일 트로바토레 등 다수 작품 출연
- 모데나 극장, 산타 체칠리아 극장, 루마니아 국립 오페라 스튜디오, 폴란드 오페라 발티카 그단스크 등에서 활동
- 비비카 제노, 소니아 프리나, 안토니노 시라구사 등 세계적인 음악가의 마스터클래스 수료



돈 쿠르시오. 바질리오 Ten. 박 성 욱
Don Curzio/Basilio Ten. Park Seungkuk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졸업
- 비브라시 아카데미 합창 지휘 디플로마 2년과정 수료
- 천지창조, 바흐 교회칸타타 194번,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곡 등 솔리스트 활동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수료
- 오페라 <나부코>, <마술피리>, <잔니 스키키>, <세비야의 이발사>, <심청>,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왕평>, <264 그 한 개의 별>, <윤심덕 시의찬미> 주·조역 출연
- 현) 경주시립합창단 단원



안토니오 Bass 박 준 모
Antonio Bass Park Junmo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2019 영남대학교 오페라 <사랑의 묘약> 둘까마라 주역
- 2013 계명대학교 콩쿠르 입상, 2020 대구음악협회 콩쿠르 2위, 2021 KPCS콩쿠르 3위, 2023 드림성악콩쿠르 입상, 2023 한중연합콩쿨 명예상, 2024 대구 음악교육 신문사 콩쿨 1위 등 다수 입상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수료
- 2024-2025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극장 <라 보엠> 데뷔 및 콜리네 출연



바르바리나 Sop. 이 예 지
Barbarina Sop. Lee Yeji

- 계명대학교 성악과 및 예술대학원 졸업
-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 최고연주자 과정 수료
- 2018년 제2회 이탈리아 프렐미오 니콜라 디 스테파노 콩쿠르 2위, 2014년 제 20회 마산음악협회 콩쿠르 특상, 제6회 우봉아트홀 주최 콩쿠르 금상
- 이탈리아 디비아니 극장 <콘체르토 칸토 리리코>, 헝가리 보쇼크 뮤직페스티벌 갈라콘서트 출연
- 대구오페라하우스 콘체르탄테 <라 트라비아타> 비올레타 역, <일 트리티코> 오스미나 역 출연
- 달서아트센터, 프란츠 클래식 오푸스라움, 앙상블리안홀, 어뮤즈사운드, 아울러서 주최 다수 콘서트 및 리사이틀 출연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바르바리나 Sop. 김 우 린
Barbarina Sop. Kim Woorin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학사. 석사 졸업 및 박사 수료
- 제29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오페라 W. A. 모차르트 <마술피리> 파미나 역 출연
- 제30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오페라 W. A. 모차르트 <돈 조반니> 돈나 엘비라 역 출연
- 제32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오페라 J.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줄리에타 역 출연
- 2020, 2021 이탈리아 페루자 페스티벌 연주
- 2024 G.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원 음악회 G. 푸치니 <라 보엠> 미미 역 출연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디오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음악감독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공연담당 정은영 악보담당 이상원 홍보담당 김윤주

Violin I 박은지 정수현 박민서 장유진 장혜진 김현비 이소희 이지애 박나연 장세희 | Violin II 류가현 노선균 김재은 장지은
이은영 윤희주 양수빈 장혜지 | Viola 조재형 김효원 박선영 김혜인 조민지 김예송 | Cello 강운성 김형기 최재영 박소희
설예은 박소현 | Contra Bass 함소현 김지정 서한나 | Flute I 백선미 | Flute II 이한나 | Oboe I 배민주 | Oboe II 강지수
Clarinet I 김민주 | Clarinet II 전다양 | Bassoon I 조혜연 | Bassoon II 조윤주 | Horn I 양삼영 | Horn II 김태우
Trumpet I 이해연 | Trumpet II 전성화 | Timpani 이희정



대구오페라콰이어 Daegu Opera Choir

대표 김지영 음악감독 김성환 단무장 배은경 반주자 류지원 임윤지

Sop. 박예람 이나은 정원정 김채이 정경진 신유경 이다경 | Alto 박수정 이진아 박지원 정주현 김서현 한혜원 권민선
Ten. 김주호 민경휘 이후영 이승현 박재민 서영덕 전지훈 | Bass 김준년 김대인 문형우 주성은 조해준 박종섭



무대디자인 김현정

Scenic Design Kim Hyun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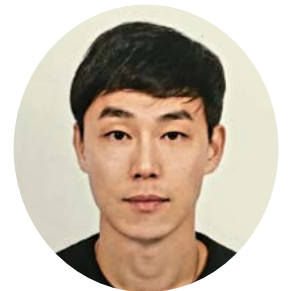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가구디자인) 졸업, 이탈리아 브레라국립미술원 졸업
- 국립오페라단 미술감독 역임,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전임대우 교수 역임
- 오페라 <아랑>, <지귀>, <사랑의 묘약>, <피가로의 결혼>, 송년 오페라 갈라 <지크프리트의 검>, <세비야의 이발사>, <투란도트>, <마술피리>, <아이다>, <오텔로>, <토스카>,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창작오페라 <박쥐>, <허왕후>, <양철지붕>, 연극 '오리사냥', '연애희곡', '컬렉션', '십이야', '아일랜드', '화금석' 국립창극단 '적벽' 등 무대디자인 및 신년음악회, 터키만찬 전시회 등 참여



조명디자인 문길환

Lighting Design Moon Gilhwan

-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독일 K15, 에스토니아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 일본 히로시마 아스텔프라자, 헝가리 에르켈 극장, 이탈리아 페라라 시립극장 등 국내외 주요 극장 및 국제 페스티벌 조명디자인 참여
- 오페라 <코지 판 투테>, <라보엠>, <마술피리>, <헨젤과 그레텔>, <박쥐>,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세비야의 이발사>, <리골레토>, <돈 카를로>,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투란도트>, <살로메>, <장미의 기사>, <오텔로>, <아이다>, <안드레아 세니에>, <일 트로바토레> 등 작업
- 연극 '반야아저씨', '유리동물원', 무용 '햄릿 에피소드', '코리아 더블빌', 'ICE & WATER' 등 작업



영상디자인 안재연**Graphic Design** Ahn Jaeyeon

- 오페라 <라 보엠>, <나비부인>, <투란도트>, <박쥐>, 연극 '비상', '갈매기', '콜라소녀', '벚나무동산', 뮤지컬 '가얏고', '반딧불', '미쓰코리아', '달빛에 잠들다', 국악극 '대청여관' 외 다수 영상디자인
-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작품 전시기증 'HERO' 제주 무비스타 신영영화박물관, Vslab 빛장 그룹전 Projection mapping Group Exhibition 초청 작가, 청주공예엑스포 참여작가 선정 전시 'The Third skin Breathing space' 외 다수 작업
- 현) 미디어 플랜트 대표, 영상감독으로 활동 중

**의상디자인 이수진****Costume Design** Lee Sujin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 <아이다>, <투란도트>, <운명의 힘> 외 <돈 파스칼레>, <카르멘>, <가락국기> 등 다수 오페라 의상디자인 및 감독
- 대구오페라하우스 <피가로의 결혼>, <투란도트>, 대구시립오페라단 <나비부인>, <팔리아치>, <라 트라비아타>, <파우스트> 등 의상디자인 및 감독
- 대구시립극단 '벚꽃동산', '세일즈맨의 죽음', 뮤지컬 '귀신통' 외 다수 공연 의상디자인 및 감독

**분장디자인 김언영****Makeup Design** Kim Eonyoung

- 대구가톨릭대학교예술대학원 뷰티코디네이트디자인학과 미술학석사
- 프랑스 크리스찬 쇼보 수료
- 제32회 대구연극제 <무대미술상>입상
- 실경수상 창작뮤지컬 <부용지애> 분장총괄
- 창작뮤지컬 <왕의나라> 분장총괄
- 동동서원 사액봉행재현행사 분장총괄
- 오페라 <심청>, <264, 그 한 개의 별>,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리날도>, <라보엠>, <마술피리>, <돈 조반니>, <팔리아치>, <춘향전>, <잔니스키키>, <세비야의 이발사>, <카르멘>, <아키스와 갈라테아>, <살로메> 외 창작 오페라 다수 분장디자인
- 연극 '햄릿', '리어왕', '한여름밤의 꿈', '탈라라하우스', '템페스트', '십이야', '파우스트', '해무' 등 다수 분장 디자인
- 현) 에리카메이크업프로덕션 대표

**조연출 한지현****Assistant Director** Han Jihyeon

- 대전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동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수료
- 오페라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오텔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마술피리>, <노르마>, <피가로의 결혼>, <왕자, 호동>, <사랑의 묘약>, <브람스>, <세비야의 이발사>, <돈 조반니>, <피델리오>, <빨간바지>, <서부의 아가씨>, <마하고니도시의 도시의 번영과 몰락>, <코지 판 투테>, <오를란도 핀토판초>, <파르지팔> 등 다수 조연출

**오페라코치·첼발로 정호정****Opera Coach/Cembalo** Jeong Hojeong

-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 미국 줄리어드 음악원(Juilliard School) 석사 및 아티스트 디플로마 졸업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성남문화재단, 아트센터 인천, 줄리어드 음악원 등에서 오페라 코치로 활동
- Lyndon Woodside 오라토리오-솔로 콩쿠르, 라비니아 페스티벌, 서울국제콩쿨 등 공식 반주자 역임
- 현)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국립오페라단 스튜디오 출강

**오페라코치 은빛나****Opera Coach** Eun Bitna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졸업
-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아 및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페라코치과 졸업
- Ottorino Respighi 국제반주콩쿨, A.I.D.M 국제반주콩쿨 우승
- 오페라 <아이다>, <나부코>, <토스카>, <라보엠>, <안드레아 세니에>,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세비야의 이발사>, <장미의 기사>, <심청> 등 다수 작품 오페라 코치
- 2024 사야오페라어워즈 작품상 수상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및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반주과 출강,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반주 강사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김광현
연출	엄숙정
무대디자인	김현정
조명디자인	문길한
영상 디자인, 오퍼레이터	안재연
의상디자인	이수진
분장디자인	김언영
PD	강지운 박형기
무대감독	이남문
무대조감독	심건수
조명감독	문길한
음향감독	조원호
오페라코치	정호정 은빛나
첼발로	정호정
조연출	한지현
조연출보	여지은
소품수	권하은
통역, PM	Anna Lee
자막 오퍼레이터	허성훈
무대크루	구민우 김우림 이아영 심건수 최대현 조피아 서우용 김태현 김승규 박산울 이정민 정진실
조명크루	배수영 이승준 남희원 손정현
음향크루	김예동 윤예지
의상크루	하새봄 김효진 이현진 정이삭
분장팀	에리카메이크업프로덕션
촬영팀	프로덕션 나무앤숲
사진촬영	용스튜디오
의상제작소	골무무대의상
소품제작소	미티테이즈
무대제작소	이조디자인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관장	정갑균
공연예술부장	김득주
무대시설부장	강영구
공연기획팀	팀장 이호진 이한나 박선영 최서윤 한규리 김현주
국제교류팀	팀장 김민정 박형기 심유진 박새별 강지윤
홍보마케팅팀	팀장 정유경 김유리 백지연 최수민
무대예술팀	팀장 박병달 문길한 차광석 정진섭 김태학 이남문 최진영 김남오 박준환 조윤호 조현우 최지희
시설관리팀	팀장 이철훈 장성훈 김경도
10기 오페라팬	게라시멘코 안젤리나 문보미 배민욱 배순옥 오 늘 윤정민 이수진 이채현 장성민 추승민
18기 오페라필	구다은 권지민 김규리 김나은 김채영 남다정 류성은 박보영 박선영 박소은 서보훈 소효진 신영빈 여도영 유영실 이민서 이유리 이지안 임영재 장수연 장지운 전경애 정수현 조재영 조채민 최경진 최은빈 하윤수 황병태 황예진

대구오페라하우스 창·제작_콘체르탄테

The Beauty

진영민 미인

10. 28 TUE. 19:30 대구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백진현
연출
이해영

신씨/설우 Sop.
김지원
은양군 Bar.
이호준
별감 Ten.
이충만
한씨 M. Sop.
서미선
차남 Ten.
이승민
달문 M. Sop.
김예은
신씨모친 M. Sop.
변경민
남순 Sop.
허은정
당숙 Bar.
손재명

디오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콰이어
극단 놀해랑



LEE BAE Brushstroke A6 - 152 x 102cm, 2024

22nd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주최 대구광역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주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예매 NOL 티켓 1661-5946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日中韓文化交流年
中日韩文化交流年

한·일·중 오페라 갈라 콘서트_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기념

The Heart of the East, One Stage

동방의 심장, 하나의 무대

10. 30 ^{THU.} 19:30 대구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송안훈

한국
대구오페라하우스
Sop.
임세경
Ten.
유준호
Bass Bar.
사무엘 윤

일본
후지와라극단
Sop.
미츠오카 아키에
Ten.
후에다 히로아키
Bass
이토 타카유키

중국
국가대극원
Sop.
주효림
Ten.
왕 충
Bass
관치경

디오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콰이어



LEE BAE Brushstroke-45 - 162 x 130cm, 2024

22nd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주최 대구광역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협력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예매 NOL 티켓 1661-5946

본 사업은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진행합니다.

